

대용사의 결속이론

서 수 현

1. 지정 주어 조건과 주격 섬 조건

대용사란 재귀사와 상호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대용사의 결속 원리는 대명사, 지시적 명사구의 결속 원리와 더불어 지배결속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¹⁾의 핵심을 이루는 보편적인 이론이다. Chomsky(1981)는 대용사의 결속²⁾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속이론을 제안하였다.

(1) 대용사의 결속 원리

대용사는 그 지배 범주(governing category) 안에서 결속된다.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지배 범주는 대용사와 그것의 지배자(governor) 그리고 그것에 접근 가능한 대주어(accessible SUBJECT)를 모두 내포하는 최소 범주이다.

여기서 대주어란 절에서 가장 두드러진 명사적 요소, 즉 주어-동사 일치소(AGR) 또는 주어(subject)를 지칭한다. 이와 같이 대주어를 설정하는 것은 다음 두 예문을 하나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2) a. John_i thinks that Bill_j like himself_j.
b. * John_i thinks that himself_j is honest.

(2a)에서 재귀사의 지배범주는 대주어 Bill을 포함한 종속절이며 *himself*는 그 안에서 선행사를 가지므로 (1)의 결속원리를 만족한다. 한편, (2b)에서 재귀사의 지배범주는 *himself*

* 이 연구는 대우재단의 1990년 박사과정 연구지원 장학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지배-결속 이론은 종래의 생성-변형 문법(generative-transformational grammar)으로부터 발전되어 현재에 이른 문법이론으로 촘스키(Chomsky 1981)에서 본격적으로 제안되어 연구되었다.

2) 결속(binding)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i) A가 B를 결속시키려면,
(a) A와 B가 지표(index)가 같고
(b) A가 B를 성분 통어(c-command)해야 한다.
(A binds B iff
(a) A and B are coindexed and
(b) A c-commands B.)

성분 통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ii) A가 B를 성분 통어하려면,
(a) A가 B를 관할(dominate)하거나 B가 A를 관할하지 않고,
(b) A를 관할하는 첫번째 분지되는 절점(node)이 B를 관할해야 한다.
(A c-commands B iff
(a) A does not dominate B nor does B dominate A and
(b) the first branching node dominating A dominates B.

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주어, 종속절의 AGR을 포함한 영역이므로 종속절이 지배범주가 되고 *himself*는 그 안에서 선행사에 결속되지 못하므로 (1)의 결속원리를 위반한다. 그런데 (2a)는 대용사 결속 현상의 근간이 되는 지정 주어 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을 나타내며, (2b)는 지정 주어 조건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격 섬 조건(nominative island condition)을 나타낸다.

Chomsky(1980)에서 지정 주어 조건(=SSC)과 주격 섬 조건(=NIC)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3) 지정 주어 조건

대용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 안에서 결속된다. (=An anaphor is bound in the minimal category containing the nearest subject.)

(4) 주격 섬 조건

대용사는 시제가 있는 절의 주어가 될 수 없다. (=An anaphor may not be the subject of a tensed clause.)

(3)의 지정 주어 조건을 (2a, b)에 적용시키면 (2a)는 지정 주어 조건을 만족하여 정문이 되는 반면, (2b)는 지정 주어 조건에 따라 재귀사가 가장 가까운 주어 *John*에 결속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다. 그러므로 (2b)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정 주어 조건외에 다른 조건을 설정하여 (2b)가 그 조건을 위반함을 보여야 한다. (2b)의 비문법성의 원인은 다음 예문들의 문법성의 차이에서 밝혀지는 듯 하다.

(5) a. *John_i thinks [that himself_i is honest.] (= (2b))

b. John_i believes [himself_i to be honest.]

(5a)에서 종속절은 시제절로서 AGR을 갖고 있으나 (5b)에서 종속절은 AGR이 없다. (5a, b)의 결속현상은 이런 경우 (5a)의 지배범주는 종속절에 제한되나 (5b)의 지배범주는 주어가 있는 주절까지 확대됨을 보여준다. 이는 AGR이 마치 주어처럼 지배범주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AGR과 주어를 대주어(SUBJECT)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통합함으로써 (4)의 지정 주어 조건과 (5)의 주격 섬 조건을 하나로 통합한 결속원리 (1)을 제안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방식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주어와 AGR이 결속 이론상 같다고 보는 것은 (5a, b)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내적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경험적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므로, 대주어라는 어색한 개념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SSC와 NIC의 두 조건을 통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론의 단순화, 일반화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예문들은 NIC외에도 다른 부수적 제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6) a. * John thinks [that himself is honest.]

b. John thinks that a picture of himself pleases everyone.

앞서 말한 바와 같이 (6a)는 종속절이 AGR을 포함하므로 그 종속절 안에서 결속되지 않는 재귀사는 NIC를 어겨 비문이다. 그렇다면 (6b)는 왜 NIC를 어김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omsky(1981)은 결속원리 (1)에 접근가능성 조건(Accessibility Condition)을 포함하여, 지배범주가 접근가능한 대주어(accessible SUBJECT)

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b)에서 종속절의 AGR은 대주어이나, 접근가능한 대주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6b)에서 선행사를 종속절의 AGR로 택하여 재귀사와 같은 지표를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어 동일지표 내포 금지 조건(i-within-i condition)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 (7) ...[a picture of himself]_i^t AGR_i ...
 (8) i-within-i condition
 * [... α_i ...]^t

(7)에서 AGR은 재귀사 계속에 의해 재귀사와 같은 지표를 갖게 되며, 한편 주어진 명사구는 AGR로부터 지정어—핵일치(SPEC-Head agreement)에 의해 재귀사와 같은 지표를 갖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어 NP 안에 같은 지표를 가진 재귀사가 NP의 일부로 존재하므로 (8)을 위반한다. 이와 같이 재귀사와 선행사 사이에 공지표를 주었을 때 (8)을 어기면 접근가능하지 않는 대주어이며, (8)을 어기지 않으면 접근가능한 대주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설명 자체를 위한 조작이며 계속원리의 일반성을 떨어뜨리는 복잡한 제약이다. 만일 (6b)에 SSC만 적용된다면 (6b)는 재귀사에 가장 가까운 주어 *John*에 계속되므로 당연히 문법적인 문장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계속원리가 NIC를 포함할 경우 (6b)에 NIC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일 지표 내포 금지조건, 접근가능성과 같은 복잡한 개념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즉, AGR을 억지로 주어와 같은 것으로 보는 대주어의 설정이 접근 가능성이라는 두번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대주어 설정이라는 첫번째 가설은 더욱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워진다.

세번째 문제점은, 대용사의 계속원리와 대명사의 계속원리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된다.

(9) 계속이론

- (A) 대용사는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An anaphor must be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B) 대명사는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 (A pronominal must be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Chomsky(1981)에 의하면 대용사, 대명사의 지배범주는 그 구성 요소가 똑같으므로 만일 같은 구조에서라면 하나의 지배 범주 안에서 대용사는 계속되는데 대명사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용사와 대명사가 같은 구조, 같은 자리에 올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 예문들은 대용사와 대명사의 자리가 상보적 분포를 함을 보여준다.

- (10) a. John_i loves himself_i.
 b. *John_i loves him_i.
 (11) a. *John_i thinks that [himself_i is honest.]
 b. John_i thinks that [he_i is honest.]
 (12) a. [John_i believes himself to be honest.]
 b. *[John_i believes him_i to be honest.]

그러나, Chomsky(1981)의 계속이론 (9)가 함축하는 대용사와 대명사의 이러한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다음 예문은 보여준다.

- (13) a. They_i love each other_i's sons.
 b. They_i love their_i sons.

Chomsky(1981)에 의하면 (13a, b)의 지배범주는 다같이 주어틀 포함한 절 전체가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결속되는 재귀사를 가진 (13a)는 정문이나, (13b)는 대명사의 결속이론을 어겼으므로 비문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와 반대이다. 따라서 (13a, b)는 대용사와 대명사의 지배범주가 같은 환경에서는 항상 같다고 보는 Chomsky(1981)의 결속이론에 대한 반례이며 이것이 세계 문제점이다.

네번째로는, Chomsky(1981)의 결속이론에 의하면, 지배범주 안에 있고 대용사를 성분통어(c-command) 하는 NP는 어느 것이나 그 대용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 예문들은 그와 반대로 지배범주 안에 있는 NP 중에도 특히 주어만이 선행사가 되는 주어지향성(subject-orientation)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것을 포착하지 못함이 이론의 결함이 된다.

- (14) a. John_i told Bill_j about himself_{i,j}.
 b. John_i told Bill_j that a picture of himself_{i,*j} would be on sale.
 (15) a. They_i love each other_i.
 b. I introduced them_i to each other_i.
 c. They_i told us_j that a picture of each other_{i,*j} would be on sale.

(14a)나 (15a, b)와 같이 최소절(minimal clause)안에서는 주어나 목적어에 결속되는 대용사가 (14b), (15c)와 같이 최소절(minimal clause) 밖에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어만을 선행사로 취하는 주어지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14b), (15c)에서 목적어가 선행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결속이론이 세련되어야 한다.

Chomsky(1981)의 다섯번째 문제점은 소위 장거리 결속 재귀사(long-distance binding reflexive=LDR)의 결속현상을 바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 (16) a. [철수_i는 자기_i를 미워한다.]
 b. 철수_i는 [내가 자기_i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장거리 결속 재귀사의 일종인 한국어 재귀사 자기는 Chomsky(1981)의 결속원리 (1)에 의하면 (16a, b)에서 지배 범주가 똑같이 대주어를 포함하는 최소절이 될 것이다. 따라서, (16b)에서 자기_i는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지 않아 (1)을 어길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이다. 이러한 LDR의 결속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Yang(1983)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한국어의 대용사의 지배범주는 항상 문장 전체, 즉 무한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용사에서 지배범주의 역할은 대용사가 결속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한한 지배범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어 자기는 지배범주가 없이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기만 하면 문법적이라는 말과 같다. 이것은 결속이론에 필수적 요소이던 지배범주가 더이상 언어보편적 개념이 아님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제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주격 섬 조건의 제거

Chomsky(1986a)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속이론을 수정했다.

(17) 결속 이론

- (A) 대용사는 그 지배범주안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 (B) 대명사는 그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지 말아야 한다.
- (C) 지시적 표현(=R-expression)³⁾은 결속되지 말아야 한다.

(18) 지배범주의 수정

A의 지배 범주는 A의 지배자를 포함하는 최소 완전 기능 구조(complete functional complex)로서 결속이론상 적합해야 한다.

여기서 완전 기능 구조란 모든 가능한 문법적 기능을 내포하는 구조로서, 한마디로 말하여 주어틀 내포하는 완전한 절 또는 명사구를 뜻한다. 결속이론상적합하다고 함은 주어진 지배 범주 안에서 어떤 가상적인 지표가 주어졌을 때 결속이론이 만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뜻이다.

수정된 결속이론 (17), (18)이 뜻하는 것은, 대용사나 대명사의 지배범주를 결속이론상 적합한 최소 완전 기능 구조라고 정의함으로써 같은 문장 구조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NP 라도 그것이 대용사나, 대명사이냐에 따라 지배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용사에 적합한 지배범주는 가상의 선행사를 포함해야 하는 반면, 대명사에 적합한 지배범주는 가상의 선행사⁴⁾없이도 결속이론상 적합성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a. [_{GC} They love each other's pictures.]

b. They love [their pictures].

(19a)에서 주어틀 포함한 명사구는 최소 완전기능구조가 된다. 그러나 (17)에서 요구하는 결속이론상 적합한 최소 완전 기능구조는 아니다. 왜냐하면, (19a)의 대용사는 감정적 선

3) R-expression이란 Referring expression 즉, name이다. 이것은 결속이론 (C)를 만족한다.

결속 이론 (C)는 다음과 같다.

(i) An R-expression must be free (=not bound).

(ii) a. John_i likes himself_i.

b. * He_i likes John_i.

(iia)에서 John은 결속이론 (C)를 만족하나 (iib)의 John은 *he*와 지표가 같고 성분 통어되므로 (i)의 결속이론 (C)를 어긴다.

4) the least CFC=the least complete functional complex (최소 완전 기능 구조): 문법적 기능 (주어, 목적어=GF- θ)이 모두 실현된 소절구조를 말한다. 여기서는 주어가 있는 NP, S는 모두 CFC로 간주한다.

5) 가상의 선행사(potential antecedent)란 index가 미정인 상태에서 대용사를 성분 통어하는 자리에 있는 NP를 말한다. 따라서 가상의 선행사가 결속이론 적용 후에 진짜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 a. John saw [_{GC}Mary's picture of herself.]

b. *John saw [_{GC} Mary's picture of himself]

c. [_{GC} John saw a picture of himself.]

(ia)와 (ib)에서 재귀사의 감정적 선행사는 NP의 주어이므로 BT-compatible GC는 다같이 NP 이나 (ia)에서는 가상의 선행사가 우연히 진짜 선행사가 된 것이고 (ib)에서는 가상의 선행사가 index가 달라 재귀사의 진짜 선행사가 되지 못한다. (ic)에서는 NP의 주어가 없으므로 NP는 CFC가 아니다. 따라서 가상의 주어가 있는 S가 최소의 CFC이자 BT-compatible GC이고, 가상의 선행사 *John*이 진짜 선행사가 된다.

행사를 가져야 결속이론상 적합성을 만족하나 명사구에는 대용사를 성분통어할 수 있는 명사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9a)에서 명사구 다음으로 최소의 완전 기능구조인 절 전체를 지배범주로 삼아야 하며 그 안에서 대용사는 선행사에 결속되어 결속이론(A)를 만족한다. (19b)에서 대명사는 최초의 최소 완전 기능구조인 명사구가 곧 결속이론상 적합한 지배범주가 되어, 그 안에서 대명사는 결속되지 않으므로 (17)의 결속이론 (B)를 만족하여 정문이다. Chomsky(1986a)는 이와 같이 대용사나, 대명사나에 따라 지배범주를 상대화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같은 대용사인 경우에도 잠정적 선행사가 있느냐에 따라 지배범주가 달라진다.

- (20) a. [s=GC They love [NP each other's pictures.]
 b. *They love [NP=GC his picture of each other].

종래의 결속이론에 의하면, (20a, b)에서 대용사의 지배범주는 대용사의 지배자와 대주어를 포함한 영역이므로, 두 문장이 다 명사구를 대용사의 지배범주로 보아 (20a)는 틀리고 (20b)도 틀린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17)의 수정된 결속이론을 적용하면 (20a)는 대용사를 성분통어할 수 있는 잠정적 선행사를 포함한 최소 완전 기능구조는 절 전체이고 그 안에서 BT(A)가 만족되는 반면 (20b)는 명사구가 *each other*를 성분통어할 수 있는 선행사 *his*를 포함하므로 지배범주이고 그 안에서 대용사가 결속되지 않으므로 비문임이 잘 설명된다.

그런데 (20a, b)를 자세히 보면, Chomsky(1986a)의 결속이론이란 지배범주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의 SSC effect를 보다 충실히 반영시킨 것임을 알게 된다. 즉 (20b)*와 같이 대용사는 지시적 주어 *his*를 뛰어넘어 멀리 있는 주절 주어 *they*를 선행사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AGR을 주어와 동일시하던 입장을 버리고 주어만이 지배범주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종래 NIC와 SSC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되던 결속현상을 이제는 순수한 SSC effect로 보고 있다.

- (21) a. *John thinks that himself is honest.
 b. John believes himself to be honest.

위와 같은 입장에서 (21a, b)를 분석하면 (21a)*나 (21b)가 모두 SSC를 어기지 않으므로 결속이론 (A)를 만족하게 된다. 실제로 (21a)*에서 재귀사와 그것의 잠정적 선행사를 포함한 최소영역은 주절 전체이고 그 안에서 재귀사는 결속되므로 결속이론 (A)를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21b)도 재귀사와 그것의 잠정적 선행사 *John*을 포함한 주절 전체가 결속이론상 적합한 지배범주이고 그 안에서 결속이론 (A)를 만족하고 있다. 종래 Chomsky(1981)은 (21a)*를 NIC 위반으로, 즉 AGR을 대주어로 가정하여 설명하였으나, Chomsky(1986)은 문제점 많은 NIC를 버리는 대신, 대용사가 주어자리에 못 오고 목적어 자리나 (21b)와 같이 주절 동사에 고유지배되는 자리에만 오는 분포상의 특징을 포착하여 (21a)*를 공범주 원리⁶⁾에 관련된 현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공범주 원리는 흔적에만 적용되므로 S-구조에서는 제자리에 있는 대용사가 LF-구조에서는 움직인다고 가정해야 한다. Chomsky(1986a)는

6) 공범주 원리 : 흔적 t는 고유 지배(proper government)되어야 한다. 동사는 목적어를 고유 지배하지만, AGR은 그 주어를 고유 지배하지 못 한다.

영어의 재귀사, 상호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불어의 접사(clitic)⁷⁾가 INFL⁸⁾로 이동하듯이 영어 대용사도 INFL로 이동한다고 가정했다. LF-구조에서 대용사 이동이 일어난 후의 (21a)*는 다음과 같다.

(22) *John himself-INFL think that t is honest.

이 문장은 이제 대용사가 있으므로 결속이론을, t가 있으므로 공범주 원리를 만족해야 한다. (22)에서 대용사는 *John*에 결속되어 결속이론 (A)를 만족하지만, 시제철의 주어자리의 t는 고유지배되지 못하므로 공범주 원리를 어긴다.

LF-구조에서의 재귀사 이동을 받아들이면, 앞서 논의된 불어의 접사이동(clitic-climbing)과의 유사성을 포착하고, (21a)*를 ECP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다음에서 보는 대용사의 주어지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a. John_i told Bill_j that a picture of himself_{i,*j} would get a prize.

b. They_i told us_j that a picture of each other_{i,*j} would get a prize.

(24) a. John_i himself_i-INFL [_{VP} tell Bill_j [that [[a picture of t_i] would get a prize]]].

b. They_i each other_i-INFL [_{VP} tell us_j [that [[a picture of t_i] would get a prize]]].

(23a, b)의 LF-구조는 (24a, b)와 같다. LF-구조에서 대용사가 INFL로 이동하고나면 주절 주어는 (24a, b)에서 대용사를 결속할 수 있으나 주절 목적어는 대용사를 성분 통어하지 못하므로 결속할 수 없고 따라서 선행사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용사의 주어 지향성은 영어에도 대용사 이동이 존재하며, 그 이동은 INFL로의 이동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지금까지의 Chomsky(1986a)의 수정된 결속이론의 초점은 NIC를 버리고 결속현상을 SSC로만 포착하되, 대용사는 특히 LF에서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ECP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 앞 장에서 제기한 Chomsky(1981)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NIC가 없어졌으므로 그로 인한 대주어 개념과 동일지표 내포 금지 조건이 제거되었고, 대용사와 대명사가 같은 자리에 오는 것은 지배법주를 상대화함으로써 설명되었으며, 종래의 NIC effect와 주어지향성은 모두 대용사가 LF에서 INFL로 이동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설명된다.

그러나, 왜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지배법주의 기준이 정해지지 못하고 막연히 무한한 지배법주를 갖는다고 해야 하는지는 설명못한다. 즉 원거리 결속을 하는 재귀사 자기는 왜 영어처럼 제한된 영역을 지배법주로 갖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Chomsky

7) clitic(접사) : Romance어(불어, 서반아어, 이탈리아어...)에서는 재귀사의 역할을 하는 접사가 SS에서 V 또는 INFL과 결합되어 나타나며, 주어만을 선행사로 취하며, 접사 바로 앞의 주어에만 결속되는 국부적 결속의 특징을 지닌다. clitic의 예는 다음과 같다.

(i) a. Les garçons_i se_i regardent t_i.

b. The boys_i themselves_i-INFL look at t_i.

영어 재귀사의 INFL로의 이동은 이러한 clitic-movement에서 유추하여 제안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clitic에 대한 연구는 Kayne(1987) 참조.

8) INFL은 *-es*, *-ed*와 같은 굴절 어미가 추상화된 핵(X⁰)으로 영어에서 시제(tense), 부정사(infinitive)의 *to*, 그리고 동명사(gerund)의 *-ing*가 된다. AGR은 시제철의 INFL에만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1986a)가 주장한 대로 모든 재귀사의 흔적이 ECP를 만족해야 한다고 볼 경우, Wh-이동이나 NP-이동과 같은 일반적인 이동이 보여주는 ECP 현상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5) a. John_i thinks [_{CP} that [_{NP} a picture of himself_i] is on sale.]
 b. *John_i seems [_{CP} that [_{NP} a picture of t_i] is on sale.]
 c. *Who_i do you think [_{CP} that [_{NP} a picture of t_i] is on sale]?

(25a)에서 대용사도 LF에서 이동 후 t가 남게 되므로 (25b, c)*와 똑같은 자리에 t가 있게 된다. 그런데 (25b, c)*는 ECP를 여기는데 왜 (25a)는 ECP를 만족하는가? (25b, c)에서 t는 *picture*에 의해 어휘지배되나 ECP를 여기므로, 여기서의 ECP란 Lasnik-Saito(1984)가 말한 어휘지배나 선행사지배 중 어느 하나만 만족되면 되는 이원화된 개념이 아니라 어휘지배의 여부에 상관없이 t는 선행사지배될 것을 요구하는 선행사지배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25b, c)*에서 선행사와 t 사이에는 NP라는 장벽(barrier)⁹⁾이 있으므로 ECP가 위반된다. 만일 대용사이동이 Wh-이동이나 NP-이동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면 (25a)도 ECP를 위반할 것이다. 그러므로 Chomsky(1986a)는 (25a)의 문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대용사이동과 ECP의 관계에서 생기는 또다른 문제점은 대용사가 시제절의 주어자리에 못 나타나는 것을 일종의 that-t effect로 본 Chomsky(1986a)의 분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된다.

- (26) a. *Who do you think [_{CP} that [_{IP} t left]]?
 b. Who do you think [_{CP} t' [_{IP} t left]]?
 c. *John thinks [_{CP} that [_{IP} himself is honest]].
 d. *John thinks [_{CP} [_{IP} himself is honest]].

(26a, b)와 (26c, d)의 비교에서 보듯이, Wh-이동의 that-t effect는 *that*가 없으면 사라지는

9) 장벽(barrier) : Chomsky(1986b) 참조.

(i) α 가 β 에 대하여 장벽이 되려면,

a. α 는 β 에 대한 IP 이외의 차단범주(blocking category=BC)이거나,

b. α 는 β 에 대한 차단 범주를 관할하는 최대 투사 범주이어야 한다.

(α is a barrier for β iff

(a) α is a BC for β except IP or

(b) α is the first maximal projection that dominates a BC for β .)

(ii) α 가 β 에 대한 차단 범주가 되려면,

a. α 가 β 를 관할하고,

b. α 는 L-표시(L-mark) 되지 않은 최대 투사 범주이어야 한다.

(α is a blocking category for β iff

(a) α dominates β and

(b) α is a maximal projection that is not L-marked.)

(iii) α 가 β 를 L-표시하려면,

a. α 는 어휘적 핵, 즉 N, V, A, P이고,

b. α 가 β 를 의미역 지배하여야 한다. 단, α 가 의미역 지배하는 최대 투사 범주가 IP 또는 CP 일 때는, 그 최대 투사 범주의 지정어(specifier=SPEC)도 의미역 지배된다.

(α L-marks β iff

(a) α is a lexical head, N, V, A or P, and

(b) α θ -governs β when β is an X^0 or an XP or the SPEC of CP or IP)

데 반해, 재귀사이동의 *that-t effect*는 *that*가 있든 없든 존재한다. 더구나, 재귀사이동은 LF-이동이므로 ECP를 적용하기 전에 아무런 해석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that*를 지워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6b)처럼 ECP를 만족하지 않는 것인가? Chomsky(1986a)의 수정 제안은 많은 이론적 발전을 거두었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3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Chomsky(1986a)에서 다소 막연하게 제시된 대용사이동은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거나 비판받았으나, 많은 연구의 공통점은 대용사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이 곧 지배범주라고 보았으며, 대용사가 멀리 못나가게 하는 유일한 제약은 ECP뿐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다음에서 대용사이동에 관한 그 간의 중요한 제안들을 살펴보자.

3. 대용사 이동과 ECP

3.1. Pica(1987)

Pica(1987)는 각 언어의 재귀사를 그 형태론적 구조가 복잡한 재귀사는 XP-대용사로, 형태론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진 재귀사는 X⁰-대용사로 분류한 후에, XP-대용사는 XP-이동만을, X⁰-대용사는 X⁰-이동만을 해야 한다는 이동제약을 설정했다. Pica(1987)는 이러한 이동 제약은 기존의 구조보존 가설(structure-preserving hypothesis)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므로 문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일반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라 다음 예문을 분석해 보자.

- (27) a. John_i told Bill_j about himself_{i,j}.
 b. John_i thinks that Bill_j likes himself_{*i,j}.
- (28) a. John_i [_{VP} himself_i [_{VP} told Bill_j about t_i]].
 b. *John_i [_{VP} himself_i think [_{CP} that Bill_j likes t_i]].
- × 선행사지배

영어의 재귀사 *himself*는 *him*과 *self*의 결합, 즉 XP-재귀사이므로 같은 XP인 VP에 부착되어야 하며 만일 X⁰인 INFL로 이동한다면 Pica(1987)의 이동 제약을 어기게 된다. (27a)의 LF-구조인 (28a)에서 VP로 이동한 재귀사는 주어, 목적어 중 어느 것이나에 의해 결속되므로 (27a)와 같이 어느 NP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또, (28a)에서 재귀사의 흔적은 *himself*에 의해 선행사지배되므로 ECP도 만족한다.

한편, (27b)에서 주절 주어가 선행사가 되려면 재귀사가 주절의 VP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런데 (28b)에서 보듯이 만일 재귀사가 주절의 VP로 움직이면, 재귀사의 흔적과의 사이에 장벽 CP가 가로막혀 재귀사 흔적이 선행사지배되지 못하여 ECP를 어긴다. 이 때, 재귀사가 CP에도 부착되었다가 VP로 이동할 수 있다면 부착에 의해 장벽성이 제거되는 일반적 예로 보아 (28a)가 ECP를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부착 제약(adjunction constraint)에 의해 제거된다.

(29) 부착 제약

논항(=argument)에 대한 부착은 금지된다.

(29)에 의해 논항인 CP에는 XP-재귀사가 부착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29)는 모든 XP-재

귀사는 반드시 CP 안에서만 이동하여 선행사를 찾으므로 영어의 *himself*와 같이 국부적 결속(local binding)만을 하게됨을 설명한다. 한편, 한국어 자기와 같은 재귀사는 X⁰-재귀사이므로 X⁰-이동만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0) a. 철수_i는 [CP 영수_j가 자기_i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b. John_i thinks that Bill_j likes himself_i;
 (31) a. 철수_i는 [[영수_j가 t_i를 좋아한다 IP] t'_i CP] 생각하 자기_i-ㄴ다.
 b. *John_i himself-thinks [CP that [IP Bill likes t_i]].

(30a, b)에서 한국어 자기는 장거리 결속을 하는 반면 영어 *himself*는 CP 밖에서 선행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30a, b)의 LF-구조인 (31a, b)에서 보듯이 자기는 INFL, Comp로 X⁰-이동을 하므로 어떤 XP도 장벽이 될 수 없으므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그 결과 장거리 결속이 허용된다. 반면 영어의 XP-재귀사는 CP를 못 넘으므로 CP밖의 선행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CP를 넘으면 t가 선행사지배가 못 되어 ECP를 어기기 때문이다.

XP-재귀사는 VP에 부착되고, X⁰-재귀사는 INFL에 부착된다는 Pica(1987)의 주장은 두 재귀사 사이의 주어지향성의 차이를 설명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2) a. 철수_i는 영희_j에게 자기_{i,*j}에 관해 얘기했다.
 b. John_i told Bill_j about himself_{i,j}.
 (33) a. 철수_i는 [VP 영희_j에게 t에 관해 얘기하] 자기_i-ㄴ다.
 b. John_i [VP himself [VP told Bill about t]].

(32a, b)와 같은 단문에서는 재귀사가 어디로 이동하던 장벽 CP가 없으므로 ECP는 모두 만족된다. 그런데 (33a)에서 INFL로 이동한 재귀사는 목적어 NP와의 사이에 VP가 있으므로 성분통어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여 목적어를 선행사로 취하지 않는 반면 (33b)에서 VP로 이동한 XP-재귀사는 VP-adjunction에 의해 VP의 장벽성을 없앴으므로¹⁰⁾ 목적어에 의해 결속된다. 따라서, X⁰-재귀사는 장거리이동을 하며 항상 주어만 선행사로 취하는 반면 XP-재귀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하며 주어 뿐 아니라 목적어도 항상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Pica(1987)의 이동 제약에 의해 모두 설명된다. 이러한 분석은 바꾸어 말하면 XP-재귀사의 지배범주는 그 재귀사를 포함하는 최소절까지이며 X⁰-재귀사의 지배범주는 항상 문장 전체임을, 지배범주를 따로 설정할 필요없이 대응사에 대한 이동 제약과 ECP로 예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0) 부착 제약은 May(1985)에서 제안되었다. May(1985)의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 규칙에 의하면, 양화사는 VP, IP에는 부착될 수 있고 NP, CP에는 부착될 수 없는데 이는 NP, CP가 논항이므로 거기에 부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Chomsky(1986b)에 의하면 VP도 L-표시되지 않는 최대 투사 범주이므로 장벽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VP는 장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 Whom did [IP you [VP meet t]]?

단일 (i)에서 VP가 barrier라면 IP도 barrier일 것이므로 (i)은 하위 인접조건을 어길 것이다. Chomsky(1986b)는 이를 피하기 위해 Wh가 VP-adjunction을 하면 VP의 장벽성이 제거된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VP가 INFL의 complement임에 착안하여, VP는 처음부터 장벽이 아니라고 보므로 (i)과 같은 간단한 문장에서 Wh는 VP-adjunction할 필요없이 직접 이동해도 좋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Pica(1987)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34) John_i thinks [_{CP} that a picture of himself_i is good.]

위 예문은 Pica(1987)의 주장과는 달리 XP-재귀사도 CP밖에서 선행사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동 제약에 의하면 (34)는 비문으로 잘못 설명된다.

Pica(1987)의 두번째 문제점은 SSC effect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5) a. *Mary knows [_{NP} John's love of herself.]

b. Mary knows [_{NP} John's love of himself.]

(35a, b)에 대한 각각의 LF-구조는 다음과 같다.

(36) a. *Mary [_{VP} herself [_{VP} knows [_{NP} John's love of t]]]

b. Mary [_{VP} herself [_{VP} knows [_{NP} John's love of t]]]

(36a, b)에서 XP-재귀사는 부착 제약 때문에 논항인 NP에는 부착되지 못하므로 VP로 직접 이동할 것이다. (36a)에서 재귀사는 주어에 의해 결속되며, NP는 L-marked XP로서 장벽이 아니므로 재귀사의 흔적은 ECP를 만족한다. 그런데 (35a)*에서 SSC effect 때문에 Mary는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 없고 이 문장은 비문이다. 따라서 Pica(1987)는 CP안에서의 SSC effect를 포착하지 못한다.

한편, (36b)에서도 재귀사는 비논항 VP에 부착되고 이 때 선행사가 되어야 할 John은 XP인 NP에 걸려 재귀사를 성분통어하지 못하므로 결속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36b)가 비문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Pica(1987)은 CP안의 결속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다.

Pica(1987)의 세번째 문제점은 Yang(1989)이 지적한 대로 영어의 XP-재귀사가 CP밖에서 결속될 뿐 아니라 마치 X⁰-재귀사처럼 주어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37) John_i told Bill_j that a picture of himself_{i,*j} would be on sale.

(37)이 의미하는 것은 Pica(1987)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영어의 XP-재귀사도 한국어 재귀사처럼 CP밖에서 결속되고 또 그 때 주어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XP-이동의 X⁰-이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Yang(1989)은 Pica(1987)의 이동 제약을 버리고 XP-재귀사와 X⁰-재귀사가 모두 XP-이동이나 X⁰-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영어의 *himself*도 한국어의 자기처럼 원거리 결속을 해야 하는 잘못된 예언을 하므로 지나치게 강한 주장이다.¹²⁾ 그러므로 앞서 논의한 Pica(1987)와 Yang(1989)의 주장을 절충하고 ECP외에 대응사이동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제약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12) Yang(1989)에 의하면, 다음 예문에서 영어의 *himself*는 모든 주어를 선행사로 삼는다.

(i) John_k thinks that Bill_j consider [_{GC} Peter_i proud of himself_k.]

재귀사가 X⁰-이동하면 *John*, *Bill*, *Peter*가 모두 선행사가 된다. 이를 막고 *Peter*만이 선행사가 되게 하려면 종래의 지배범주를 받아들여, *John*과 *Bill*은 지배범주 밖에서 결속하므로 선행사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3.2. Huang & Tang(1989)

Huang과 Tang(1989)의 제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된 Barss(1986)의 주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38) a. A picture of himself_i pleased t_i John.
 b. Which picture of himself_i does John_i like t?
 c. Himself_i, John_i likes t.

(38a, b, c)에서 선행사 *John*은 재귀사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결속이론에 의하면 재귀사는 그 선행사에 의해 직접 결속되어야 하므로 (38a, b, c)는 모두 결속이론 (A)를 위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예문들은 모두 문법적이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가설을 세워야 한다.

Williams나 Riemsdijk 같은 학자들은 (38a, b, c)을 위해 결속이론은 그대로 두고 결속이론이 적용되는 level을 제한한다.¹³⁾ 즉, 결속이론 (A)는 (38a, b, c)와 같은 S-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소위 reconstruction에 의해 NP-이동, Wh-이동, 주제화(Topicalization) 이동에 의해 움직여 간 요소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 간 후 결속이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38a, b, c)는 다음과 같이 되고 결속이론 (A)가 만족될 것이다.

- (39) a. Δ pleased [a picture of himself] John.
 b. Δ does John like which picture of himself.
 c. Δ , John_i likes himself_i.

(39a)에서 *a picture of himself*가 지닌 대상[*theme*]이라는 의미역이 *John*이 가진 경험사(experiencer)라는 의미역보다 하위에 있으므로, 통사적으로도 NP 전체는 *John*보다 하위에 있어 *John*이 *himself*를 결속하게 된다.

Barss(1986)는 결속원리 (A)가 LF에서 재구성(reconstruction)¹⁴⁾이 일어난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40) a. Which picture of himself_{i,j} did John_i think that Bill_j like t?
 b. John_i think that himself_{i,j}, Bill_j likes t.

(40a, b)는 이동을 안한 원래의 자리에 있었다면 종속절 주어만이 선행사가 되었을 것을 이동을 한 후에는 주절 주어까지도 선행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구성한 후에 결속이론 (A)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이동하더라도 이동 않은 경우에 비해 대응사결속

13) 보다 정확히 말하면, NP-이동은 대응사 결속에 영향을 주고 Wh-이동은 아무 영향도 안 미친다고 보아, NP-이동이 일어난 구조를 NP-구조, Wh-이동이 일어난 구조를 S-구조로 보고 결속이론 (A)는 이 중 NP-구조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i) John_i seems (to himself_i) [t to be intelligent].

(ii) Which picture of himself did John like t?

14) reconstruction이란 movement가 일어난 구조를 이동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규칙이며, 의미론적으로 lamda operation에 해당한다.

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40a, b)에서 보듯, S-구조에서의 이동은 대용사의 결속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Barss(1986)는 재구성없이 대용사의 결속을 설명하기 위해 결속이론을 다음과 같이 확대, 제안한다.

(41) 대용사는 결속되거나 또는 연쇄결속(chain-binding)¹⁵⁾ 되어야 한다.

(41)에 의해 (38a, b, c)를 분석하면 선행사 *John*은 대용사를 직접 결속하지는 못하나 대용사의 흔적 또는 대용사를 포함한 구의 흔적을 결속하므로 (41)의 연쇄결속에 의해 결속원리 (A)는 만족된다.

Huang과 Tang(1989)은 (38a, b, c)중에서도 특히 대용사 단독으로 이동한 Topicalization을 영어의 대용사이동이 SS에서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중국어 재귀사 *ziji*가 LF에서 이동할 때 일종의 양화사 이동¹⁶⁾으로서 IP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였다.

(42) Zhangsan_i manyuan Lisi_j chang shuo Wangwu_k bu xihuan *ziji*_{i,j,k} (Zhangsan_i complained that Lisi_j often said that Wangwu_k does not like self_{i,j,k})

(43) a. Zhangsan_i manyuan [Lisi_j chang shuo [Wangwu_k bu xihuan *ziji*_i]].

b. Zhangsan_i manyuan [Lisi_j chang shuo [_{IP} *ziji*_j [_{IP} Wangwu_k bu xihuan *t*_j]]].

c. Zhangsan_i manyuan [_{IP} *ziji*_i [_{IP} Lisi_j chang shuo [_{IP} *t*_i' [_{IP} Wangwu_k bu xihuan *t*_j]]]]].

(43a, b,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어 재귀사 *ziji*는 모든 절의 주어를 다 선행사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재귀사가 가장 하위절 IP속에 그대로 있으면 *Wangwu*가, 하위절에 부착되었을 때는 *Lisi*가, 주절 바로 밑의 IP에 부착되었으면 *Zhangsan*이 선행사가 되므로, 중국어 선행사가 한꺼번에 여럿 있는게 아니라 각 LF-구조마다 하나의 선행사가 있고 재귀사는 (43b, c)에서 보듯이 연속적 이동을 하므로, 근본적으로 재귀사가 국부적 결속(local binding)을 한다는 점은 중국어 재귀사도 영어 재귀사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영어는 중국어처럼 원거리결속을 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Huang과 Tang(1989)는 Pica(1987)처럼 XP-재귀사와 X⁰-재귀사를 구별하되 그 차이를 이동 제약에 두지 않고 지지적 지표(R-index)를 정하는 기능을 가진 결속이론이 XP-재귀사는 SS에서, 중국어의 X⁰-재귀사는 LF에서 적용된다고 보아 장거리 결속 현상의 유무를 설명했다.

(44) a. *John_i think that Bill likes himself_i.

b. Zhangsan_i... [Lisi_j... [Wangwu_k... *ziji*_i]]

(44a)*에서 영어의 XP-재귀사는 SS에서 결속원리가 적용되므로 재귀사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채로 선행사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Bill*만이 선행사가 되고 *John*은 *himself*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한편 (44b)에서 X⁰-재귀사는 중간의 IP들에 들러 *Zhangsan*과 *Lisi* 사이로 이동하고 난 후에 LF에서 결속이론이 적용되므로 아무리 먼 절의 주어라도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15) chain-binding: 어떤 요소가 대용사를 직접 결속하지 않더라도, 대용사가 이동한 흔적, 또는 대용사를 포함한 구가 이동한 흔적을 성분통어하면 chain-bind한다고 본다. Barss(1986) 참조.

16) 양화사 인상은 scope(작용역)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단 한번의 부착으로 scope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재귀사가 일종의 양화사라고 보면서도 Wh-이동처럼 연속적 이동을 하는 점은 QR과 다르다.

Huang과 Tang(1989)이 이와 같이 원거리 결속하는 재귀사이동은 cyclic movement를 한다고 주장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 (45) Zhangsan_i shuo [wo_j zhidao [Lisi_k chang piping ziji_{i,*j,k} (Zhangsan said that I feel that Lisi always criticized himself)

(45)에서 보듯이 가장 가까운 주어와 가장 먼 주어는 [인칭, 수]와 같은 ϕ -지표가 같고 중간 *wo*만 1인칭으로 ϕ -지표가 다르다. 만일 LF에서 대용사가 자신의 선행사 바로 옆까지 곧장 이동한다면 ϕ -지표가 같은 두 주어 *Zhangsan*과 *Lisi*는 선행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wo*와 같이 지표상의 충돌을 일으키는 NP가 하나 끼면 그보다 멀리 있는 NP는 설사 ϕ -지표가 기왕의 선행사와 같더라도 대용사를 결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용사는 직접 원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각 절마다 한번씩 둘러 가는 연속적 이동을 함이 입증된다. (45)와 같은 현상을 차단효과(blocking effect)라 한다.

Huang과 Tang(1989)는 또한 중국어 Wh-이동이 복합 명사구 제약효과(complex NP constraint effect)¹⁷⁾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용사의 이동은 이러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대용사가 IP-부착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46) a. *ni zui xihuan [[ta weishenme mai_{CP}] de shu_{NP}]? (You like the book that he bought why?)
 b. Zhangsan_i bu xihuan [[neixie piping ziji_{i,j/CP}] de ren_{NP}] (Zhangsan_i does not like those people_j who criticize self_{i,j})
 (47) a. *Why_i did you like [_{NP} the man [_{CP} who kicked Bill t_i]?
 b. *John_i does not like [_{NP} the man [_{CP} who criticized himself_i]].

(46~47)에서 영어의 XP-재귀사와 Wh-이동, 그리고 중국어 Wh-이동은 관계절을 넘어 이동하지 못하는 복합명사구 제약효과를 보이는 반면 중국어 X⁰-재귀사는 복합명사구 제약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Huang과 Tang(1989)의 주장과 달리 재귀사를 IP에 부착시켜 IP로부터 장벽성을 상속받아 CP가 장벽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수 있을 지 모르나 관계절 CP가 L-표시된 논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장벽이 되고 NP도 역시 장벽이다. 그러므로 X⁰-재귀사는 다른 이동과 달리 관계절, 부사절을 건널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동은 모두 XP의 이동인 반면 X⁰-재귀사는 X⁰의 이동이므로 부사절 CP의 장벽성이 무력해 지기 때문이라고 봄이 옳겠다.¹⁸⁾

Huang과 Tang(1989)의 제안은 차단효과를 일종의 주어 연쇄의 일치조건의 위반으로 본 점, 대용사 이동이 반드시 연속적 이동이라야 함을 밝힌 것은 참신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재귀사를 일종의 양화사로 보아 LF에서의 재귀사 이동을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으로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양화사인상과 같은 clause-boundedness가 왜 없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이와 같이 종류가 다른 2가지 양화사인상이 있다는 것은 문법을 복잡하게

17) CNPC(=Complex noun phrase condition): Complex noun phrase, 즉 관계절이나 동격절과 같이 [NP [CP ...]]의 구조로부터 어떤 요소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18) 최대 투사 범주 XP로부터 그것의 핵을 이동시킬 때 XP는 핵 이동에 대한 장벽이 아니다. 따라서 Comp를 건너 가면, CP의 장벽성은 면제된다.

한다.

둘째, 영어의 XP-채귀사는 SS에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결속이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 모든 채귀사가 양화사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때 영어 채귀사는 왜 LF에서 안 움직이는가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세째, 중국어 대용사의 부사절 밖으로의 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INFL로의 이동 대신 IP로 이동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IP로의 이동을 가정해도 왜 복합명사구 제약효과가 안보이는지 설명되지 않으므로 IP-adjunction을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다.

네째, 대용사 이동을 가정하면서도 SS에서 움직이지 않고 결속되는 영어의 대용사를 위해 종래의 지배범주를 그대로 도입해야 하므로 Pica(1987)보다 더 복잡하다.

3.3. Heim, Lasnik and May(1988)

Heim, Lasnik과 May(1988)는 someone, everyone과 같은 순수 양화사에 대한 분석을 확장하여 복수 또는 복수선행사를 갖는 each other 같은 상호사도 양화사로 보고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상호사 each other는 배분의 기능을 가진 operator *each*와 그것에 짝할 reciprocator 기능을 하는 *other*의 결합이다.

- (48) a. The boys like each other.
 b. The boys each like the other.
 c. I gave a candy to the boys each.

(48a, b, c)는 모두 서로 연관된 each other의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48a)와 (48b)가 같은 의미이므로 (48a)의 each가 LF에서 이동해 (48b)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48b)에서 each는 주어 NP에 부착된 것인지 아니면 INFL에 부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48c)에서 비로소 each가 NP에 직접 부착됨이 입증되므로, 양화사의 성질을 띤 상호사 each other는 LF에서 선행사 NP로 부착된다고 Heim, Lasnik과 May(1988)은 가정한다.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우선 같은 linking 관계라도 복수 명사가 온 경우에는 배분적 의미와 집합적 의미의 양의성을 띠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 (49) [John and Mary] told each other that they should leave.

(49)에서 linking이론에 의하면 종속절 *they*가 *John and Mary*에 link 되었는지 *each other*에 link되었는지에 따라 2가지 의미만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each-이동을 가정하면 *John and Mary*가 *they*에 link된 경우로부터 2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즉 each가 주어 NP에 대해 배분자의 역할을 한 때는 *John*과 *Mary*가 서로 자기가 떠나야 한다고 한다는 뜻이며 each가 안 움직였다고 보면, *John*과 *Mary*가 함께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는 뜻이 된다. each-이동을 가정하면 다음 예문의 비문법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50) a. *They each love each other.
 b. *They each-each love t other
 |
 *each conflict

의 주장처럼 NP에 속해있는 자질이 아니냐, NP와 VP의 의미관계에서 파생되는 자질이라는 것이다.

- (54) a. They probably each like themselves.
 b. They collided after PRO criticizing each other's driving.

(54a)에서 Heim, Lasnik과 May(1988)의 분석과는 달리 each가 NP에 부착되지 않음에도 역시 정문이므로 each가 우연히 NP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NP에 부착된다고 보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b)에서 ‘충돌하다’라는 collide는 의미상 이미 each other를 내포하므로 공배분자 D가 작용하며 NP를 직접 단수로 만든다면, 이러한 주어에 통제(control)된 PRO 역시 단수일 것이므로 부사절 안의 each와 conflict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54b)가 정문이므로 Heim, Lasnik, May(1988)가 each가 NP에 부착되어 [+distributive]가 일당 되면 NP 전체의 속성이 단수화하는 것처럼 본 것은 잘못이다. Heim, Lasnik과 May(1988)의 세번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dis]
- (55) [John and Mary] gave each other pictures of [each other].

(55)같은 경우 Heim, Lasnik과 May(1988)는 each-conflict를 피하기 위해 같은 each other가 2번 나오면 하나는 흡수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분석은 (55)의 each other의 선행사는 항상 같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linking theory에 의하면 두 each other는 별개로 주어 NP에 작용하여 ‘John은 Mary에게 그들 두사람의 사진을 주었고 Mary도 John에게 함께 찍은 사진을 주었다’는 의미가 생길 수 있는데 each-이동와 each-흡수를 주장하는 Heim, Lasnik과 May(1988)는 이런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

네번째로, 모든 상호사는 local binding을 하여 선행사가 하나 뿐인데 Heim, Lasnik과 Saito(1988)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상호사의 SSC effect를 포착하지 못한다.

- (56) *They_i think that we love each other_i;

(56)*에서 each가 wide scope를 가지면 CP를 지나 they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56)*은 비문이다.

다섯째 문제점으로, floated each는 [+distributive]의 기능이 강해 양화사라 볼 수 있으나, each other는 each보다 복수성이 더 강함을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다.

- (57) a. They each have { a new nose }
 *new noses }.
 b. They gave each other { *a new nose }
 new noses }.

3.5. 점검과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 논의된 가설들, 즉 INFL-이동 IP-부착, NP-부착 같은 갖가지 제안들을 살펴보고 검토한 결과, Pica(1987)의 XP-재귀사와 X⁰-재귀사의 분류와 X⁰-이동인 경우에는 INFL로 이동하고 XP-이동인 경우에는 VP에 부착된다는 제안과 Yang(1989)의 영어의 XP-재귀사도 CP밖에서 X⁰-movement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채택하고 나면, 아직까지 미결로 남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XP-재귀사의 SSC effect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둘째, 대용사이동이 ECP에 걸리되, 같은 구조에서 다른 XP-이동(Wh-이동, NP-이동)와 같은 ECP effect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셋째, 한국어의 X⁰-재귀사와 달리 상호사는 그 형태론적 구조가 XP건 X⁰건 상관없이 SSC effect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째,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지배범주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없이 대용사의 이동이 가능한 영역이 곧 지배범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 ECP외에 다른 어떤 제약이 필요한가?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을 규명하고 대용사이동과 다른 일반적 이동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널리 인정되어 오던 Lasnik과 Saito(1984)의 ECP개념 대신 Rizzi(1987)의 ECP를 수정, 보완한 새로운 ECP가 필요함을 보이겠다. 그리고 언어마다 별도로 설정되어오던 지배범주를 제거하고 대용사이동과 그에 관련된 문법원리만으로 SSC effect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ECP와 지정어-INFL 일치(SPEC-INFL agreement)²⁰라는 2가지 원리를 조합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보이겠다. 이 이론은 영어의 재귀사가 한국어 재귀사처럼 X⁰-이동에 의해 최소절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는 달리 원거리 결속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적절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재귀사의 결속현상에는 그 재귀사의 형태론적 구조, 지정어-INFL 일치의 유무, ECP 같은 몇가지 요인들이 복합적 작용을 하여 각 언어의 재귀사 결속은 규칙적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사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SSC effect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Yang(1983)은 모든 상호사는 의미상 XP-대용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⁰-이동을 할 수 없다고 가정했다. 이 세가지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4. ECP와 지정어-INFL 일치

4.1. ECP와 대용사이동

Lasnik-Saito(1984)는 모든 흔적은 고유지배되어야 하며, 고유지배란 선행사지배나 어휘 지배 중 어느 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Chomsky(1986b)는 이러한 Lasnik-Saito(1984)의 ECP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되, 어휘 지배와 선행사지배가 모두 성립되는 경우의 잉여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성 조건(minimality condition)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58) 최소성 조건

X와 어떤 핵을 관찰하는 그 핵의 투사범주(projection)는 X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지배를 막는 장벽이 된다.

(58)에 의한 장벽을 최소장벽이라고 하며, L-표시되지 않은 범주 즉 비보충어 범주가 ECP에 대해서나 하위인접조건에 대해서나 모두 장벽성을 갖는 반면, 최소장벽은 ECP에 대해

20) 여기서의 SPEC-INFL agreement는 흔히 논의되는 주어와 INFL 사이의 [성, 수, 인칭]의 일치와 같은 ϕ -feature agreement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가령, 이태리어는 주어자리에 null pro가 있을 만큼 strong INFL을 가졌지만, 여기서 뜻하는, 결속현상과 관련된 지시적 지표의 SPEC-INFL agreement를 하지 않으므로 이태리어 재귀사 *propria*는 long-distance binding을 한다.

서만 장벽성을 갖는다. Chomsky(1986b)는 (58)을 이용하여 that-t effect를 설명한다.

- (59) a. *Who do you think $\left[_{CP} t' \left[\bar{c} \text{ that } \left[_{IP} t \text{ met him} \right] \right] \right]$?
 b. Who do you think $\left[_{CP} t' \left[_{IP} t \text{ met him} \right] \right]$?

(59a)에서 t와 t'의 사이에 that가 있으므로 that의 투사범주인 \bar{C} 이 최소 장벽이 되어 t'는 t를 선행사지배할 수 없고 ECP를 어긴다. (59b)에서 t'와 t 사이에는 that도 없고 IP는 그 자체만으로 barrier가 될 수 없으므로 선행사 지배가 성립되어 ECP가 만족된다.

Rizzi(1987)는 이와 같이 that-t effect를 that 뒤의 주어 t에 선행사 지배나 어휘 지배 중 어느 것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하려는 Lasnik-Saito(1984)나 Chomsky(1986b)의 주장에 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59)에서 Wh-구가 구조상 XP이므로 XP의 t도 XP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that가 t'와 t 사이의 선행사지배를 막는 최소 지배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X^0 인 that가 XP의 선행사 지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XP의 선행사지배를 막는 최소 장벽은 XP이고 X^0 의 선행사 지배를 막는 최소 장벽은 X^0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Rizzi(1987)은 최소 장벽의 조건을 이와 같이 XP 또는 X^0 category가 같아야 한다고 제한하면서 공범주원리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 (60) X가 공범주원리를 만족하려면,
 a. X는 표준적 핵 지배(canonically head-governed)²¹⁾되고,
 b. X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상의 선행사(minimal potential antecedent)에 의해 선행사 지배되어야 한다.

that-t effect를 Rizzi(1987)의 분석대로 다시 설명해보자.

- (61) a. *Who do you think $\left[_{CP} t' \text{ that } \left[_{IP} t \text{ met him} \right] \right]$?
 b. Who do you think $\left[_{CP} t' \text{ AGR } \left[_{IP} t \text{ met him} \right] \right]$?

(61a)에서 that는 X^0 이므로 XP인 t'가 t를 선행사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60)의 ECP에 의하면 모든 흔적은 선행사 지배도 되고 X^0 -parameter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핵 지배(영어에서는 핵이 왼쪽에 오므로 오른쪽으로의 핵 지배가 표준적 핵지배가 된다)도 되어야 한다. 따라서 (61a)의 t는 선행사 지배되거나 표준적 핵 지배자가 없기 때문에 ECP를 어긴다. 한편 (61b)에서의 t는 t'에 의해 선행사 지배된다. 그리고 CP의 핵인 Comp 자리가 비어있으므로 INFL의 AGR이 C로 올라올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Comp에 있는 AGR은 핵이고 주어 t를 오른쪽으로 지배하므로 canonical head governor이다. 따라서 (61b)는 ECP를 만족한다. Rizzi(1987)의 ECP는 Chomsky(1986a)의 결속이론의 문제

21) canonical government: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성분 통어하고 둘 사이에 장벽이 없으면 지배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때 그 지배의 방향이 DS에서 X^0 -parameter가 정해진 방향과 일치해야 canonical govern 한다. 한국어는 핵인 동사가 맨 끝에 오므로 왼쪽으로 지배하는 것이, 영어는 동사가 맨 앞에 오므로 오른쪽으로의 지배가 canonical government이다.

점을 해결해 준다.

(62) *John thinks that himself is honest.

(62)에서 영어의 XP-재귀사는 논항인 CP에는 부착될 수 없다는 Adjunction Constraint 때문에 XP-movement로는 CP를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CP밖의 주어를 선행사로 취하기 위해 재귀사는 X⁰로서 Comp를 둘러 주절의 INFL로 간다.

(63) *John_i himself_i-INFL think [_{CP} [_ε t_i' [_{IP} t_i is honest]]].

(62)의 LF구조는 (63)과 같다. (63)에서 재귀사는 X⁰이므로 그 흔적도 X⁰이다. (63)에서 t'는 t를 선행사 지배하지만, 표준적 핵 지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t'가 X⁰이고 또 오른쪽으로 t를 지배하지만 t'는 AGR과는 달리 DS에서 생성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표준적 핵 지배자는 DS에서부터 결정되어, 주어는 AGR 또는 INFL, 목적어는 V, 부사는 INFL만이 표준적 핵 지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63)의 비문법성은 Chomsky(1986)의 ECP로는 설명되지 않으나 Rizzi(1987)의 ECP로는 잘 설명된다.

한편, Rizzi(1987)의 ECP는 논항과 비논항에 따라 ECP가 적용되는 level을 달리 해야 한다는 어색한 가정을 하지 않고 부사구는 주어와 달리 that-t effect를 보이지 않음을 설명한다.

(64) a. Why_i do you think that he left t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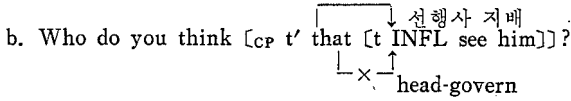
b. *Who_i do you think [_{CP} that [_{IP} t saw him?

Lasnik-Saito(1984)는 (64a, b)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why* 같은 부사구는 SS에서 이동한 것이라도 LF까지 기다려 ECP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64a)에서 *that*는 LF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그 빈 자리에 *why*와 같은 지표를 가진 t_i'를 삽입할 수 있으므로 (64a)는 LF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65) Why_i do you think [_{CP} t_i' [_{IP} he left t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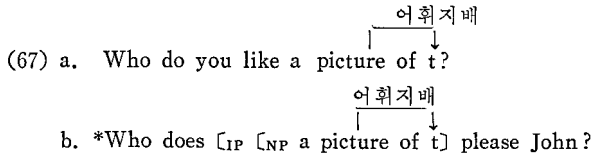
(65)에서 *why*의 t는 선행사 지배되어 ECP를 만족한다. 한편 (64b)에서 주어 t는 논항이므로 반드시 SS에서 ECP를 만족해야 하고 따라서 LF에서의 *that*-삭제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ECP가 적용된다. (64b)에서 주어 t는 *who*와의 사이에 절의 경계이자 장벽인 CP가 있으므로 선행사 지배가 못되어 ECP를 어긴다. 주어와 부사구가 다같이 동사에 의해 어휘 지배 못되는 비보충어(noncomplement)이면서도 *that*-t effect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와 같이 ECP의 적용 level을 달리하고, 부사구에 대해서 *that*의 존재를 무효화할 수 있는 LF *that*-삭제, LF t'-삽입과 같은 다른 규칙들을 가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조작이며 ECP의 일반성을 떨어뜨린다. Rizzi(1987)의 ECP로 똑같은 현상을 설명해보자.

(66) a. Why do you think [_{CP} t' that [_{IP} he INFL leave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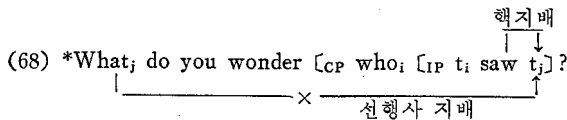
(66a)에서 부사어의 DS에서의 표준적 핵 지배자는 INFL이며 이 INFL은 Comp자리로 올라가지 않아도 항상 부사 t를 오른쪽으로 지배한다. 그러므로 (66a)의 t는 선행사 지배되고 표준적 핵 지배되어 Rizzi(1987)의 ECP를 만족한다. (66b)에서 주어의 표준적 핵 지배자인 INFL은 비어있는 Comp 자리로 올라가야만 주어 t를 오른쪽으로 지배할 수 있다. (66b)에서 Comp자리는 차 있으므로 INFL은 주어 t를 표준적 핵 지배할 수 없어 ECP를 어긴다. Rizzi(1987)의 ECP는 이와 같이 논항과 비논항을 구별하여 ECP를 적용하지 않고도, 부사어와 주어의 that-t effect상의 차이가 표준적 핵지배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자연스럽게 포착한다.

Rizzi(1987)의 ECP는 종래의 ECP로는 포착할 수 없어 별개의 원리로 설명되던 현상들을 적절히 포착한다.



Lasnik-Saito(1984)나 Chomsky(1986b)의 ECP에 의하면 (67a, b)의 Wh-t는 모두 *picture*에 의해 어휘지배되므로 ECP를 만족한다. Chomsky(1986a)는 (67b)*의 비문법성은 ECP를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위 인접 조건(subjacency condition)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한다. 즉, (67b)에서 주어 NP는 동사로부터 직접 의미역을 받지 못하므로 L-표시되지 못하여 장벽이고, IP는 이러한 NP장벽의 바로 위에서 장벽성을 상속받아 장벽이 된다. 그러면 (67b)*에서 *who*와 *t* 사이에 NP, IP의 2개의 장벽이 있으므로 하위인접 조건이 위반되어 비문이다. 그러나 본래 하위 인접 조건이란 절의 경계를 무시하고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것을 막는 제약이므로 (67b)*와 같이 단순절 안에서의 이동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Rizzi(1987)의 ECP에 의하면 모든 t는 핵 지배도 되고 선행사 지배도 되어야 하므로 (67b)*에서 *t*가 ECP를 위반했음이 간단히 설명된다. (67b)*에서 *t*는 *picture*에 의해 표준적 핵 지배되나 NP 장벽때문에 *who*로부터 선행사 지배되지는 못한다.

Rizzi(1987)의 ECP는 다음과 같은 Wh-섭 현상도 ECP 위반으로 설명한다.



(68)*에서 *who*의 t는 AGR이 빈 Comp로 올라가 핵 지배되고 *who_i*에 의해 선행사지배도 되므로 ECP를 만족하는 반면 *what*의 t는 동사에 의해 표준적 핵 지배는 되나 *what*과 *t* 사이에 최소 XP인 *who*가 있으므로 *who*가 최소 장벽의 역할을 하여 선행사 지배가 못된다. 따라서 (68)*의 *what*의 t는 ECP를 어긴다. 만일 (68)*에 Chomsky(1986b)의 ECP를 적용하면 *who*와 *what*의 t는 각각 ECP를 만족하고 다만 *what_i*이 *t_i*로부터 문두로 이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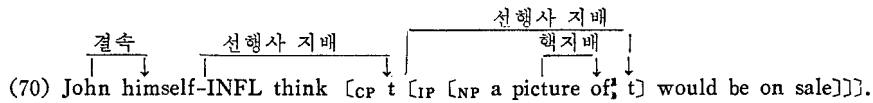
과정에서 CP 장벽을 하나 건넌다. 그런데 장벽을 하나만 건넌 것은 하위 인접 조건을 경미하게 어긴 것에 불과하므로 (68)*과 같이 매우 나쁜 문장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Rizzi(1987)의 ECP가 여러가지 점에서 설명력이 우수하므로 우리는 대용사 이동과 그 밖의 일반적인 이동에 대한 일반 원리로 이것을 채택하기로 하자. 그러나, 아직 Rizzi(1987)의 ECP로도 설명이 안되는 경우가 하나 남아 있다.

(69) John thinks [CP that [IP [NP a picture of himself] would be on sale]].

(69)에서 재귀사가 CP밖으로 이동해야 John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으므로, CP밖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X⁰-이동을 한다고 보았을 때, 주절 INFL과 himself의 t사이에는 CP와 NP라는 2개의 장벽이 있다. INFL로 이동한 himself와 himself의 t사이에는 선행사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 2개의 장벽이 면제되는가? CP 장벽은 himself가 X⁰로서 CP의 핵인 Comp를 건너 이동하므로 무효화된다. 그러나 NP 장벽은 어떻게 무시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Rizzi(1987)가 주장한 상대화된 최소성 조건에서 X⁰는 XP의 선행사 지배를 막을 수 없듯이, XP도 X⁰의 선행사 지배를 막을 수 없다고 Rizzi(1987)의 이론을 확대 해석하면 된다. (69)의 LF 구조는 다음과 같다.



(70)은 LF에서 결속이론 (A)와 Rizzi(1987)의 ECP를 만족하므로 문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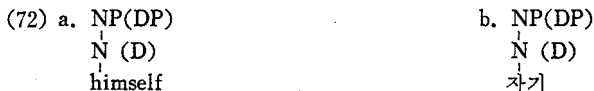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Rizzi(1987)의 ECP는 앞 장에서 제시되었던 대용사 이동에서 풀리지 않는 ECP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뿐 아니라, Wh-이동에 있어 Wh-섭 현상, 주어 조건(Subject Condition)같은 섭 제약효과를 모두 ECP현상으로 통합하며, 부사구가 that-t effect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별도의 가설없이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4.2. 대용사의 기능적 핵으로서의 성질

Yang(1989)은 Pica(1987)에 반대하여 XP-재귀사도 X⁰-이동을, X⁰-재귀사도 XP-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증거로서 다음 예문을 들었다.

(71) John_i told Bill_j that a picture of himself_{i,*j} would be on sale

만일 (71)에서 himself가 Pica(1987)의 주장대로 XP-이동만 한다면, XP-이동은 부착제약 때문에 CP를 건널 수 없으므로 CP밖에 있는 어떠한 NP도 선행사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John이 선행사가 되므로, himself가 X⁰로서 X⁰-이동을 하여 CP를 건너 갔다는 증거가 된다. XP-재귀사가 X⁰-이동을 하여 주절 INFL에 부착된다는 주장의 더욱 뚜렷한 증거는 (71)에서 주어만 선행사이고 목적어는 선행사가 못된다는 점이다. 목적어는 INFL과의 사이에 VP가 있으므로 INFL에 부착된 재귀사를 성분 통어하지 못하므로 결속 하지도 못할 것이다. Yang(1989)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려 XP-재귀사의 X⁰-이동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72a, b)에서 영어의 재귀사는 XP로 움직일 때는 XP-이동을 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핵으로서 X⁰-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한국어의 X⁰-재귀사 역시 통사 구조에서 논항 XP로 의미역을 받으므로 XP-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모든 범주가 대응사와 같이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Wh-이동도 대응사의 장거리 이동처럼 무한히 멀리 나가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Wh-이동이나 NP-이동은 대응사 이동과는 달리 X⁰-이동에 의해 멀리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응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기에 이러한 이동이 가능한 것인가?

강명운(1987)은 대응사가 일종의 기능적 핵이라고 가정했다. 게다가 Baker-Hale(1990)은 VSO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 주어가 명사일때는 일종의 단어형성규칙인 통합(incorporation)²²⁾에 의해 N+V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반면, 주어가 대명사이면 동사 앞으로 핵 이동하여 N+V로의 통합이 가능함을 발견하고 이는 대명사가 순수 명사와는 달리 정관사로서 [+definite]인 기능적 핵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명사가 소위 Abney(1986)가 핵의 일종으로 추가시킨 D(Determiner)라는 핵이라고 보면, 대명사가 V를 건너 [D_i+V·t_i...]의 구조를 이룰 때, 어휘적 핵인 V는 D가 자신의 t를 선행사 지배할 때 핵의 성질이 달라 최소 장벽 아니며, 따라서 D와 t 사이의 선행사 지배, 즉 ECP가 만족된다. 반면 VSO언어에서 주어가 명사이면, 주어가 V앞으로 움직여 통합되었을 때 같은 어휘적 핵인 V가 N과 N의 t사이에 끼어 최소 장벽의 구실을 하므로 ECP를 어기게 된다. 그러므로 VSO언어에서 주어가 D이면 D-통합이 허용되나 N이면 N-통합이 금지되는 것은 대명사가 D이고 Rizzi(1987)의 상대적 최소성 조건에서 X⁰-이동에 있어서는 기능적 핵이냐, 어휘적 핵이냐에 따라 장벽성이 상대화된다고 봄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Baker-Hale(1990)는 이에 따라 Rizzi(1987)의 ECP를 다음과 같이 더욱 세련시켜 정의하고 있다.

- (73) 흔적이 공범주원리를 만족하려면,
 a. 표준적 핵 지배를 받고,
 b. 선행사 지배도 되어야 한다.
- (74) X가 Y를 선행사 지배하려면,
 a. X가 Y와 동일지표를 가지며,
 b. X가 Y를 성분통어하고
 c. X와 Y사이에 장벽이 없으며,
 d. X와 Y사이에 Y를 성분통어하는 \bar{I} 가상의 선행사 지배자(potential antecedent governor)가 없다.
- (75) Z가 Y의 가상의 선행사 지배자가 되려면,
 a. Y가 어휘적 핵이면, Z는 Y를 성분통어하는 어휘적 핵이거나,
 b. Y가 기능적 핵이면, Z는 Y를 성분통어하는 기능적 핵이거나,
 c. Y가 XP이고 논항의 자리에 있으면 Z는 Y를 성분통어하고 논항의 자리에 있는 XP이며,
 d. Y가 XP이고 비논항의 자리에 있으면, Z는 Y를 성분통어하고 비논항의 자리에 있는 XP이다.

22) 통합(incorporation)은 핵 이동에 의해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통합되는 것을 가리킨다.

(i) John makes Mary cry.

(ii) John makes-cry Mary t.

이런 현상은 영어에는 미미하나, Navaho 어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75)의 상대적 최소성 조건이 뜻하는 것은 X^0 -이동인 경우 기능적 핵이나, 어휘적 핵이나에 따라 선행사 지배를 막는 최소장벽으로서의 잠정적 선행사 지배자의 자격이 결정되며, XP 이동의 경우 같은 XP 라도 진짜 선행사 지배자가 논항자리에 있을 때는 잠정적 선행사 지배자도 논항자리에 있어야 최소 장벽의 구실을 하며, 진짜 선행사 지배자가 비논항의 자리에 있으면 잠정적 선행사 지배자도 비논항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izzi(1987)의 최소성 조건은 XP/X^0 category, \bar{A}/A -position, 핵의 종류에 따라 상대화된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의 근거가 된 대용사 또는 대명사가 문장 내에서 논항, 즉 XP 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핵인 D 의 성질을 접한다는 주장은 Postal(1966)에서 비롯된 것이다. Postal(1966)은 다음 예문들을 근거로 대명사나 대용사는 정관사 D 와 같다고 했다.

- (76) a. you three men (= *you, who are three men)
 b. the three man
- (77) a. you'uns (=one)
 b. the ones
- (78) a. *he who she married
 b. the one who she married

우선, 대명사 *he*나 *him*은 [+definite]이며 재귀사 *himself*는 *him+self*이므로 [+definite]이다. 재귀사는 대명사를 포함하므로 대명사가 D 라면 재귀사도 D 이다. (76)에서 대명사는 마치 *the*처럼 $A+N$ 전체를 제한한다. 이 때 *you*와 *three men*의 관계가 동격이 아님을 (76)에서 계속적 용법이 허용 안되는 것으로 증명된다. 보다 강력한 증거는 (77)에서 대명사 *one* 앞에 또 대명사 *you*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코틀랜드 방언이며 Jespersen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 때 *you*가 D 라면 (77b)와 같은 경우로 설명된다. (78a, b)에서 대명사는 다른 명사보다 관계절의 선행사성이 약한데 이는 이미 D 인 것을 관계절로 또 다시 제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대용사가 다른 NP, Wh와는 달리 기능적 핵으로서 형태론적 구조와 상관없이 핵 이동을 할 수 있어, 같은 기능적 핵인 C, I 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Rizzi(1987)와 Baker-Hale(1990)의 ECP는 대용사 이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모든 기능적 핵을 건너가는 연속적 이동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79) a. John_i thinks that Bill_j likes himself_{*i,j}.
 a'. *John_i himself_i-INFL think [_{CP} t_i' [_{IP} Bill_j INFL_j like t_i]]

(79a)에서 재귀사가 가까이 있는 INFL에 들르지 않고 주절의 INFL로 이동하면 t' 와 t 사이의 종속절 INFL은 t 와 같은 기능적 핵이므로 최소 장벽이 되어 t 는 ECP를 어긴다. 그러므로 (79a)는 주절의 *John*이 선행사가 되지 못한다.

4.3. 지정어-INFL 일치

모든 대용사는 기능적 핵으로서 같은 기능적 핵인 $Comp$ 를 건너 INFL로 움직인다. 이는 모든 대용사가 목적어보다는 주어에 결속되는 주어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때 주어란 시제절, 부정사절, 동명사절, 명사구의 주어라 의미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80) a. John thinks [_{CP} that Bill likes himself].
- b. John believes [_{IP} Bill to like himself].
- c. John keeps [Bill talking about himself].
- d. John saw [Bill's picture of himself].

대용사는 X⁰-이동에 의해 INFL로 가므로 (80a, b, c, d)에서 가장 가까운 주어에 결속되기 위해서는 위 예문이 모두 *Bill* 옆에 INFL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제절의 -es, 부정사 절의 to, 동명사 절의 -ing의에 (80d)의 -'s도 INFL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Abney(1986)의 DP가설을 받아들여 -'s는 기능적 핵인 D이며 이 D는 INFL에 해당한다고 보자. 그러면 (80a, b, c, d)에서 대용사가 가장 가까이 있는 INFL로 움직였을 때 *Bill*이 선행사로 대용사를 결속하며, 움직인 대용사는 그 흔적을 선행사 지배하며, (80a, b, c, d)의 모든 대용사 흔적이 각각 표준적 핵 지배자로 V, P를 갖고 있으므로 ECP를 만족한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영어의 재귀사가 SSC effect를 갖는 반면 한국어 재귀사는 SSC effect가 없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 (81) a. John_i thinks that Bill_j likes himself*_{i,j}.
- b. 철수_i는 영수_j가 자기_{i,j}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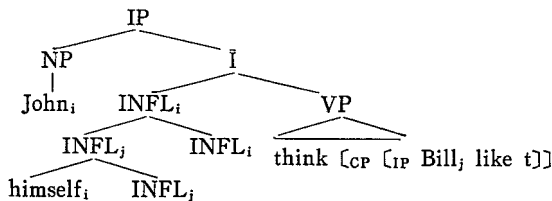
(81a)에서 멀리 있는 John은 선행사가 될 수 없으나 (81b)에서 멀리 있는 철수도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재귀사가 모두 X⁰-이동을 함을 생각할 때 ECP로는 설명될 수 없다. 대신에 영어는 일반적으로 주어-동사 일치현상이 있고 한국어는 그렇지 않은 차이가 (81a, b)를 설명해 준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 (82) 지정어-INFL 일치 조건
영어에서 주어는 그것의 INFL과 일치해야 한다.
- (83) 지표 투사 원리(Index percolation principle)
부착된 요소는 그것의 지표를 핵에 투사해야 한다.(An adjoined element must percolate its index to the 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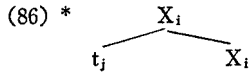
(82), (83)으로 (81a)를 분석해보자.

- (84) John_i himself_i-INFL_i think [_{CP} t_i'']_{IP} Bill_j t_i' like t_i]]

(85)



(84)는 (81a)의 LF구조이며 (84)에서 주절의 INFL을 상세히 묘사하면 (85)와 같다. 대용사가 먼저 종속절의 INFL에 부착되었다가 나갈 때, 대용사 혼자만 나가면 Tiedeman (1988)이 주장한, 부착은 단 한번만 일어난다는 제약에도 어긋나며 Baker(1988)의 다음 filter에도 걸린다.



(86)의 filter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핵에 부착되면, 그 전체인 X로 움직이며, 다시는 혼자서 별도의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제약은 GB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어휘 신성 가설(Lexical integrity hypothesis : 어떤 단어나 핵은 쪼갤 수 없다)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문법에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85)의 INFL구조는 대용사가 종속절 INFL에 들렀다가, 그 종속절 INFL이 전부 주절 INFL로 이동한 결과이다. 이 때 (83)에 의해 종속절 INFL의 지표는 대용사의 지표와 똑같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83)이 적용된 후에는 (85)의 INFL구조 안의 모든 요소는 i의 지표를 갖는다. (84)에서 John은 대용사를 결속하고 대용사 흔적은 ECP를 만족하지만, 종속절 주어와 INFL의 흔적사이에 (82)가 지켜지지 않으므로 agreement conflict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84)에서 SSC effect가 일어나 멀리 있는 주어에 결속될 수 없는 것은 ECP 때문이 아니라 (82)의 지정어-INFL 일치조건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는 AGR도 없고 그 밖의 일치 현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82)의 지정어-INFL 일치조건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가 멀리 있는 주어를 선행사로 취하더라도 결속 이론(A)와 ECP만 만족하면 되므로 문법적이다. 중국어의 blocking effect는 한국어와 영어의 중간 정도의 일치 현상이 중국어에 있음을 의미한다.

(87) Zhangsan_i shuo [CP wo_j... [Lisi_k...ziji_i*, *_{j, k}]

(87)에서 채귀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가 3인칭이었으므로 두번째 절 주어가 wo(I)와 같이 ϕ -features가 다른 1인칭이면 결속되지 않으며 더우기 이 wo 때문에 주절 주어 Zhangsan은 Lisi와 같은 3인칭인데도 선행사로 취하지 못한다. (82)의 지정어-INFL 일치를 약간 변형시켜 중국어에서는 지시적 지표(R-index)가 아니라 ϕ -feature의 지표가 주어와 INFL 사이에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세워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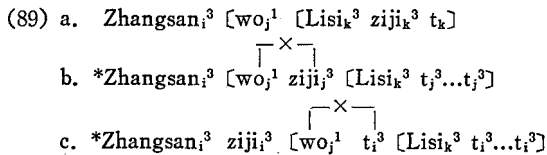
(88) 지정어-INFL 일치 조건(SPEC-INFL agreement condition)

영 어 : 주어는 그것의 INFL과 지시적 지표가 일치해야 한다.

중국어 : 주어는 그것의 INFL과 ϕ -지표가 일치해야 한다.

한국어 : 주어는 그것의 INFL과 일치할 필요없다.

(87)에 ϕ -feature의 지표를 표시하고 LF-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89a)에서 Lisi가 선행사일때 채귀사는 [3인칭]이라는 ϕ -지표를 받으며, Lisi에 결속되고 ECP를 만족하며 ϕ -지표의 일치가 이루어져 좋은 문장이다. (89b)에서 채귀사가 wo를 선행사로 취하게 되면 wo의 [1인칭]의 ϕ -지표와 채귀사가 가진 [3인칭]이라는 ϕ -지표가 agreement conflict를 일으켜 비문이다. (89c)에서 주절 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때 주절 주

(1983)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상호사는 의미상 XP의 구조를 가지므로 재귀사와는 달리 X⁰-이동을 할 수 없다고 본다. X⁰-이동을 못하면, CP밖에서 선행사를 취할 수 없고, XP-이동의 SSC effect는 Rizzi(1987)의 ECP의 상대적 최소성 조건으로 포착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다음 예문에 비추어 옳지 않다.

(92) a. They_i told us_j [_{CP} that each other's_{i,*j} pictures would be on sale].

b. They wonder [_{CP} what each other did].

(93) a. 그들은_i 우리에게_j [_{CP} 서로_{i,*j}의 그림이 팔릴거라고] 말했다.

b. 그들은_i [서로_i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위에서 보듯이 상호사는 CP밖에서 선행사를 가질 수 있고 게다가 이 때 주어지향성을 보임을 보아 X⁰-이동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상호사가 모든 언어에서 SSC effect를 갖는 것은 ECP와도 무관하고 지정어-INFL 일치조건과도 무관한 상호사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호사는 재귀사와 달리 반드시 복수명사만을 선행사로 취한다. 그리고 복수명사나 상호사는 일종의 양화사이며 Heim, Lasnik-May(1988)이나 Katada(1989) 등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이렇게 볼 때 상호사의 이동은 일종의 양화사 인상이며 모든 양화사이동은 부착이므로 단 한번만 일어난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음 문장에서 양화사인상이 여러번 일어난다면 작용역 관계를 잘못 설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94) a. Everyone thinks that someone is criminal.

a'. [_{IP} Everyone_i [_{IP} t_i thinks [_{CP} that [_{IP} someone_j [_{IP} t_j is criminal]]]]].

(94a)에서 주절의 everyone은 넓은 작용역을, 종속절의 someone은 좁은 작용역만을 갖는다. 만일, 한번 IP-부착된 someone이 또다시 주절의 IP로 이동할 수 있다면 (94a)의 작용역 관계가 잘못 해석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사도 INFL을 거쳐 선행사인 복수명사에 부착되면 더 이상의 이동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귀사가 X⁰-이동을 할 때의 SSC effect는 지정어-INFL 일치조건으로, XP-이동을 할 때의 SSC effect는 ECP의 최소성 조건으로 포착되며, 상호사의 SSC effect는 양화사는 단 한번의 부착이 허용된다는 일반적 부착 제약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지정어-INFL 일치조건과 ECP의 조합적 작용으로 대응사의 결속현상을 설명하면, Chomsky(1986a)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며, 결속이론상 적합한 지배범주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대응사가 최소절 안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를 선행사로 취하지만 최소절 밖에서는 주어만을 선행사로 취한다는 언어보편적 사실을 포착함과 동시에, SSC effect와 일치의 관계를 밝히게 된다.

본 논문의 의의는 SSC effect를 ECP가 아니라 지정어-INFL 일치로 설명한 데 있다.

References

- Abne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MIT Doctoral Dissertation.
- Aoun, J. (1981) *On the Formal Nature of Anaphoric Rel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ker, M. and K. Hale (1990) "Relativized Minimality and Pronoun Incorporation," *LI* 21.
- Barss, A. (1986) *Chains and Anaphoric Dependence: On Reconstruction and Its Im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Belletti, A. and L. Rizzi (1986) "Psych Verbs and θ -theory,"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 13, MIT, Cambridge.
- Borer, H. (1989) "Anaphoric AGR," in *The Null Subject Parameter* ed. by Jaeggli and Safir,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homsky, N. (1980) "On Binding," *LI* 11.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s.
- Cole, P., G. Herman, and L.-M. Sung (1988) "Principles and Parameters of Long Distance Reflexives," ms. University of Illinois.
- Fukui, N. and M., Speas (1986) "Specifiers and Projections," ms.
- Giorgi, A. (1984) "Toward a Theory of Long Distance Anaphora: A GB Approach," *Linguistic Review* 3.
- Heim, I., H. Lasnik, and R. May (1988) "Reciprocity and Plurality," in *Essays on Logical Form* (to appear), presented at GLOW.
- Huang, C.T. and J. Tang (1989) "On the Local Nature of the Long-Distance Reflexive in Chinese," *NELS* 19.
- Johnson, K. (1985) "Some Notes on Subjunctive Clauses and Binding in Icelandic," in MIT Working Papers.
- Katada, F. (1988) "What Can Long Distance Anaphora Say about Operator Systems in Syntax?," *NELS* 19.
- Kayne, R. (1987) "Null Subjects and Clitic Climbing," ms. MIT.
- Koster, J. (1985) "Reflexives in Dutch," in *Grammatical Representation*, Foris Publications.
- Lasnik, H. and M.,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 15.
- Lebeaux, D. (1983) "A Distributional Difference between Reciprocals and Reflexives," *LI* 14.
- Manzini, M.R. and K. Wexler (1987) "Parameters, Binding Theory, and Learnability," *LI* 18.
- Pica, P. (1985) "Subject, Tense and Truth: Towards a Modular Approach to Binding," in *Grammatical Representation*, Foris.
- Pica, P. (1987)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ization Cycle," *NELS* 15.

- Postal, P. (1966) "On So-Called Pronouns in English," in *Nineteenth Monograph on Language and Linguistics*, ed. by Dennee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Rizzi, L. (1987) "Relativized Minimality," Université de Genève, ms.
- Sells, P. (1987) "Aspects of Logophoricity," *LI* 18.
- Tiedeman, R.C. (1989) *Government and Locality Conditions on Syntactic Rel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Uriagereka, J. (1988) *On Govern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Williams, E. (1986) "A Reassignment of the Functions of LF," *LI* 17.
- Williams, E. (1988) "Is LF Distinct From S-structure? A Reply to May," *LI* 19.
- Williams, E. (1988) "Reciprocal Scope," ms.
- 강명윤 (1987) "On Reflexives," ms.
- 양동휘 (1983) "The Extended Binding Theory of Anaphors," *Language Research* 19.
- 양동휘 (1989) "On Anaphor Movement," *NELS* 19.